

구글사의 위성영상과 미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는  
지명 비교연구-한국과 대만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f Gazette Comparison of Google Earth and US Data  
base -in case of Korea and Taiwan-

박경\*,장은미

Kyeong Park, Eunmi Cha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KSIC

kpark97@sungshin.ac.kr, emchang@ksic.net

요약

세계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아직도 사실적 오류와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위치 때문에 많은 오류가 남아 있는 정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미국의 위성영상서비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글사의 검색서비스와 미국지리정보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미 구글에 관련된 논문은 Science Direct 검색결과 69개가 검색되고 있을 만큼 전세계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 세계의 지명을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사와 미국의 지명 DB내에 있는 오류사례를 찾아내고, 그 유형을 분석하고, 특히 일제의 강점을 당했던 한국과 대만사례를 비교하는 데 있다. 대만 역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지명에도 일본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앞서 나온 유형대로 몇 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들면,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의 위성영상을 보면 최소한 3개의 일본식 지명이 나타난다. 우선 해양지명으로 미조만은 Mijo-wan으로 앵강만은 Oko-wan으로 표시되어 있고, 천황산은 Tenno San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을 지칭하는 표준어는 Halla-san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명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무려 11개나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alla-san에 대한 미국의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의 지명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앞의 간라산 또는 간다산 등은 일본식 표기임이 확실하며 여기에 오클랜드산(Auckland, Mount)이라고 또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총 1,280개의 산악명과 산맥명이 등재되어 있으니 일본어 표기는 하나도 없으며, 영어로 Central Mountains와 Seaboard Mountains 두개만 영문표기 지명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가운데 12개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국내의 지명이 모두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과는 달리 대만의 경우 한자지명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 하천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1485개의 지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4개는 한자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유형별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가 올바른 지명 찾기에 기여하고, 독도와 백두산에 국한된 지명논쟁의 근간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서론

지명이란 지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지리적 실체와 더불어 인문지리적 실체에 대한 명칭의 총칭이다. 지명은 사회역사적 산물이며 그 바뀔에 따라 그 뜻도 달라진다.

세계화의 빠른 진행과 더불어 외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에게는 정확한 인식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배미애(2004)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용되는 지역지리학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양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고, 더구나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음이 알려져 있다.

사회교과서의 내용은 각국에 대한 선입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이 과거의 교과서에 비하여 많이 시정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이경한, 2004). 하지만 아직도 사실적 오류와 더불어 국제관계에서의 위치 때문에 많은 오류가 남아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 가운데 미국의 위성영상서비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글사의 검색서비스와 미국지리정보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GoogleEarth 프로그램은 지형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 대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지역에 관한 관심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박, 2006). 하지만 구글어스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위성영상 제공서비스가 RFID(Radio Frequency ID)와 길거리에 넘치는 CCTV와 같이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타나는 빅브라더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위치기반서비스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Little & Brown, 2006). 하지만 이미 구글에 관련된 논문은 Science Direct

검색결과 69개가 검색되고 있을 만큼 문화적 충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광범한 내용과 신속한 데이터제공으로 전세계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검색엔진에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너무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오류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 2. 본론

### 1) 일본의 조선지리지자료에 나타난 지명의 분류 항목

필사본 『조선지리지』에서 조사된 조사 항목은 종별로 표시되어 있다(건설부 국토지리정보원, 2006). 산명(山名), 봉명(峰名), 산곡명(山谷名), 야평명(野坪名), 천계명(川溪名), 면명(面名), 동리명(洞里名), 도진명(渡津名), 포구명(浦口名), 역명(驛名), 시장명(市場名), 주막명(酒幕名), 지명(池名), 보명(湫名), 제언명(堤堰名), 영현명(嶺峴名), 토산명(土産名), 암명(巖名), 사찰명(寺刹名), 동명(洞名), 고비명(古碑名), 고적명소명(古蹟名所名) 등의 여러 분야를 통괄하고 있다.

2) 미국의 지명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두 45469개의 남한관련 지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취락과 행정지명에 관한 내용이다.

1) 경상남·북도와 부산직할시 주변의 지명 먼저 울진군의 현종산은 Kenshozan으로 표시되어 있다.

해발 129m의 봉태산이 Hodai-san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수영만은 일본식 발음으로 Suieiwan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만 주변의 지명을 보면 아직도 일본어로 표기된 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감천만 정도에 위치한 Kanrai-ho와 낙동강 삼각주 전면의 Rakuto-ho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낙동포 정도의 용어를 일본어로 발음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낙동포는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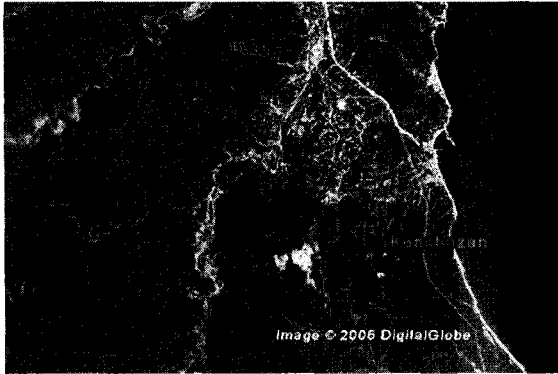


그림 1. 울진군 현종산의 위성영상



그림 2. 울산만 주변의 위성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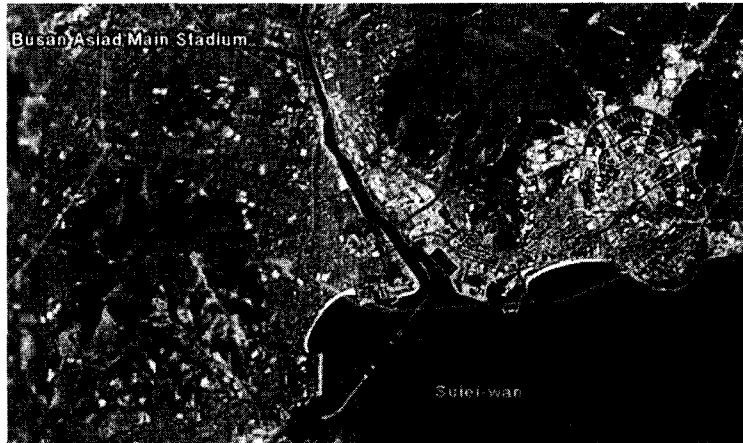


그림 3. 부산 수영만 주변의 위성영상

를 지칭하는 용어인가?

여러 개의 삼각주 상의 등 또는 섬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명칭이 일본어로 되어 있다. 부산항 주변의 해양지명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다른 지역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해안 전체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명이 나오는 지점들을 추적하였다.



그림 4. 부산앞 가덕도 주변의 위성영상

가덕도 주변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 지명의 천성만이 Tanjo-wan으로 표기된 것을 제외하고 연태봉이라는 해발 459.4m의 봉우리가 Mount Borlase로 표기되어 있다. 영어식으로 표기된 지명은 매우 희귀한데, 가덕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로 Borlase산이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며,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같은 지명을 Google site에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직할시에 위치한 산으로 표시되면서 데이터 업데이트 일자가 2004년 2월로 나타나 있다. 어떤 자료에 의존하여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매우 혼란한 상황이다.



그림 5. 부산만 주변과 낙동강 하구연 주변의 위성영상

또한 미국의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에서 운영중인 Geoname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검색한 결과, 거제도에 위치한 연대봉은 다음과 같이 표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Mount Borlase도 하나의 별칭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올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지역에 대해 위성영상을 검색하던 가운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Mount Borlase란 지명의 이명으로서 Endai-ho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예로 Mount Auckland를 들 수 있다. 이 지명은 앞에서 소개된 Mount Borlase산을 검색하던 중 같은 관광 사이트에 소개된 것을 발견하였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소개된 경위도 지점을 확인하였다. 제주도의 한라산을 지칭하는 표준어는 Halla-san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명으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무려 11개나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Halla-san에 대한 미국의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의 지명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앞의 간라산 또는 간다산 등은 일본식 표기임이 확실하며 여기에 오크랜드산 (Auckland, Mount)이라고 또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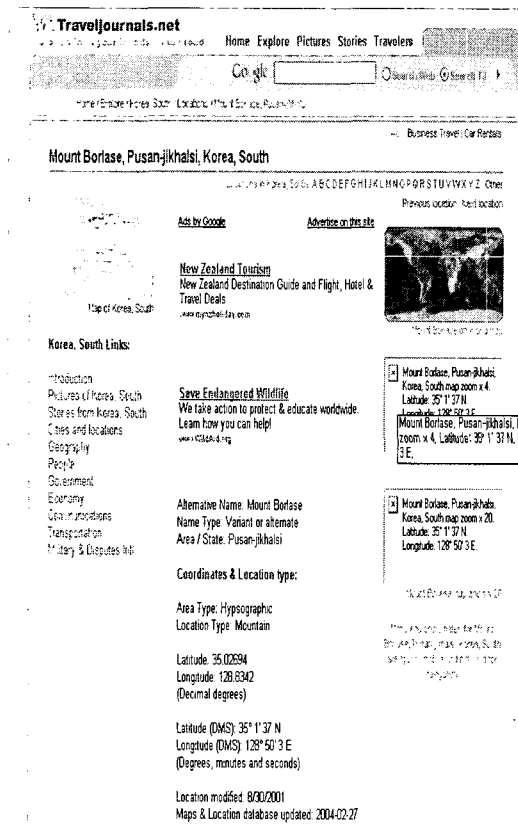


그림 6. NGIA의 화면

Variant	Kanra-san
Variant	Kando-san
Variant	Kanda-san
Variant	Kama San
Variant	Harura-san
Variant	Han-ra-san
Variant	Hannyö
Variant	Hanna San
Variant	Halna San
Variant	Hali San
Variant	Auckland, Mount

연구에 의하면 제주도는 하멜의 표류기록에 의하여 켈파트(Quelpaert)로 널리 알려졌고, 1904년에 제작된 서양고지도에 한라산을 “오크랜드산(Mt. Auckland)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당시지도에는 서양인의 이름을 딴 지명이 많은데, 우도는 뷰포트섬(Beaufort Island), 마라도는 기포드섬(Gifford Island)등으로 표시되어 있다(오일환과 김기수,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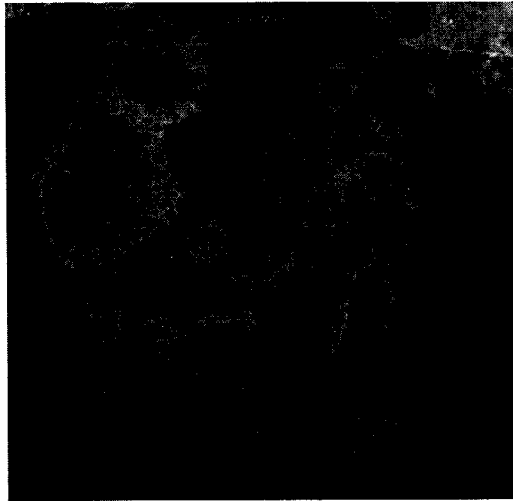


그림 7 사천만 주변의 위성영상

경상남도 남해군 일원의 위성영상을 보면, 이 지역을 보면 최소한 3개의 일본식 지명이 나타난다. 우선 해양지명으로 미조만은 Mijo-wan으로 앵강만은 Oko-wan으로 표시되어 있고, 천황산은 Tenno San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문지명	한글지명	비고
Bounzan	망운산	일본식표기
Bozi Ho	망치포	일본식표기
Chegumi Bay	저구리만	
Chosho-ho	장승포	일본식표기
Endai-ho	연대봉	일본식표기
Hokazan	봉화산	일본식표기
Kanrai-ho	감천만	일본식표기
Karazan	가리산	영문지명 (dome rock)
Kenkin-san	현금산	일본식표기
Kenshozan	현종산	일본식표기
Kingozan	금오산	일본식표기
Kisan-ko	구산강	일본식표기
Koso-wan	고성만	일본식표기
Masam Po	마산포	일본식표기
Masan-ko	마산만	일본식표기
Mo-ho	망포	일본식표기
Mount Borlase	연대봉	영문관광사이트
Nan-ho	남포	일본식표기
Nan-wan	남만	일본식표기
Oko-wan	앵강만	일본식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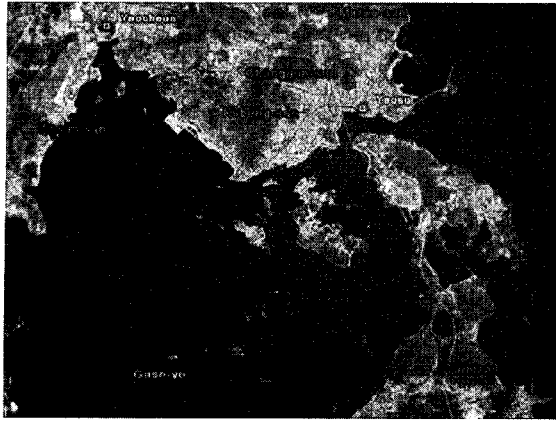
Oku-po	옥포	일본식표기
Rakuto-ho	낙동포	일본식표기
Ranho	남포만	일본식표기
Seika-wan	월포만	일본식표기
Shiran-wan	자란만	일본식표기
Suiei-wan	수영만	일본식표기
Tenjo-wan	천성만	일본식표기
Tenno-San	천황산	일본식표기
Tikuhen Wan	죽변	일본식표기
Tinkai Wan	진해만	일본식표기
Toei-kaiwan	통영만	일본식표기
Toto-wan	통도만	일본식표기
Tozo-ho	도장포	일본식표기
Tyosho-ho	장승포	일본식표기
Unchen Wan	웅천만	일본식표기

## 2. 전라남·북도 지역의 구글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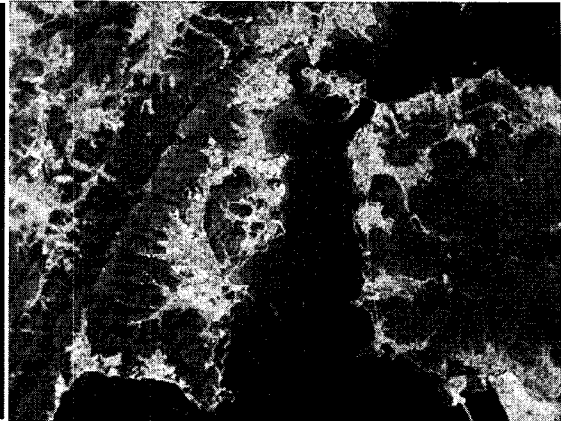
다음 그림은 여수시 가막만 일대를 보여주는 위성영상이다. 이 부분에도 명확한 일본식 지명인 Taibizan으로 불리는 지명이 있다. 위치검색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해발고도 359.1 m의 대미산으로 확인된다. 또한 Gaso-yo로 표기된 지명은 까막섬으로 표시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 근거로 여로 표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여(礮)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변 지역에 여와 초가 많이 나타나지만 가소여라고 불리는 지명은 지형도 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음은 해남일원의 영상으로 우선 Daruma-san으로 표기된 지명이 눈에 띈다. 이 지형은 해발 489미터의 달마산으로 발음이 일본식으로 부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상부의 Taiton-san은 대둔산의 잘못 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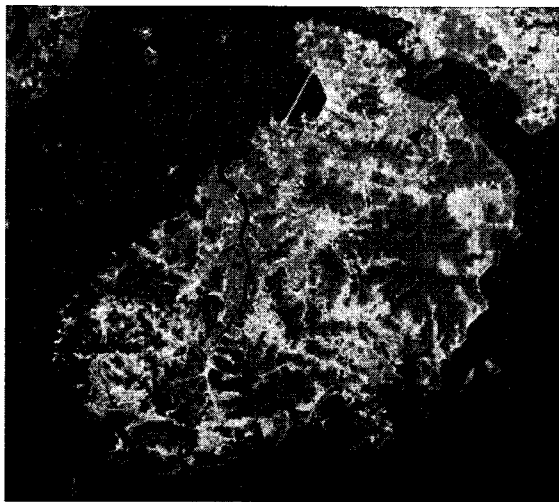
다음은 전라남도 진도군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진도군은 비율로 본다면 조사지역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보이는 곳이다. 지명이 표기된 전체 6개 가운데 침찰산은 Sensatsu-san으로 해발 221m의 금치산은 Kyuji-san으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해발 325m에 달하는 지력산은 Chiriki-san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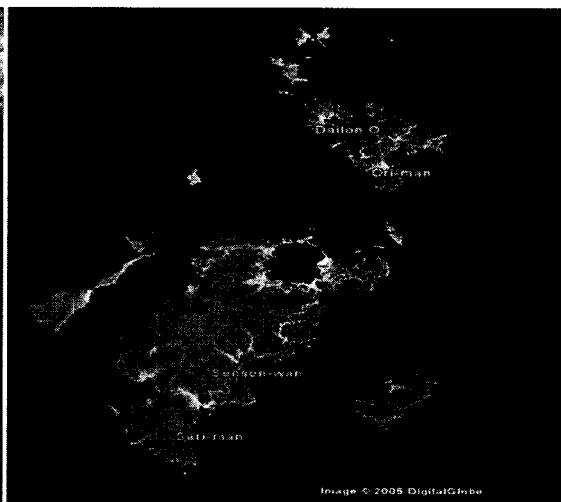
여수시 가막만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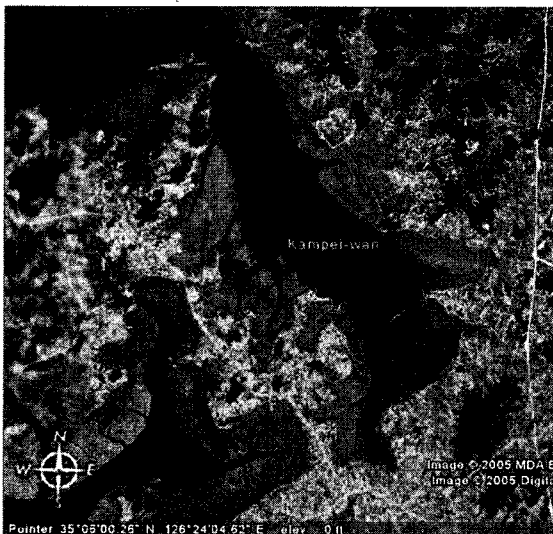
해남군 일원의 위성영상



전라남도 진도군의 위성영상



흑산도의 위성영상



함평만 지역의 위성영상

그림 5. 함평만 위성영상

나타나고 있다. 위 3개는 명백히 일본식 발음으로 판단된다. 이 외에 여귀산은 Yogi San으로 다른 산처럼 하이픈처리를 하지 않고 별개로 산(San)으로 표기하면서 발음도 여기산 정도로 읽어지도록 표기하고 있다. 지도에 표시된 석총막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석을 한글로 번역하여 돌죽 Tol로 표기하고 있다. 덕신산만이 발음에 가깝게 Toksin-san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요약한다면 전체 6개 가운데 3개의 일본식 호칭 그리고 1개의 오기 및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한자를 국어 뜻으로 풀어 쓴 1개의 지명 등 5개 가 나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전라남도 신안군 대흑산도 주변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이 곳 영상에 표기된 지명 4개 가운데 2개가 역시 일본식 표기이다. 먼저 Senson-wan으로 표기된 곳은 주변지역에 위치한 천촌리를 중심으로 천촌만일 것이나, 지도에는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다물도리 주변은 Daiton O로 표기되어 있어 전체 도엽의 4개 지명 가운데 2개가 잘 못 표기되어 있다.

그림 5은 함평만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Kampei-wan으로 표기되어 일본식 발음을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변 지역에서는 비교적 지형지물이 잘 표기되어 있으나, 다만 균유산이 다른 지역들과 달리 Kunyu-zan으로 표기되어 있어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Kaisowan	해창만	일본식표기
Kampej-wan	함평만	일본식표기
Kongo-san	금강산	일본식표기
Koyo-wan	광양만	일본식표기
Kyuji-san	급치산	일본식표기
Nissei-ho	일성산	일본식표기
Sensatsu-san	첨찰산	일본식표기
Senson-wan	천촌만	일본식표기
Sonteizan	존제산	일본식표기
Taibizan	대미산	일본식표기
Tenkanzan	천관산	일본식표기

### 3. 경기도·충청도 지역의 지명

상황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남양만의 경우 Nanyo-wan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칭으로 Prince Jerome Gulf로 소개되어 있다. 또한 한강의 하구역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강화만의 경우에도 구글영상에서 Koka-wa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NGA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명이 4개 더 소개되어 있다. 모두 다 1997년 또는 2000년에 수정·보완된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으나 국내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다.

영문지명	한글지명	비고
Chippo-ko/Komso-man	곰소만	일본식표기
Chiriki-san	지력산	일본식표기
Eibai-san	영마산	일본식표기
Gosei-zan	오성산	일본식표기
Gyuzi Wan	우이만	일본식표기
Hachieizan	팔영산	일본식표기
Hojo-wan	보성만	일본식표기

영문지명	한글지명	비고
Basil	비인만	어원불명
Chinko-san	진강산	일본식표기
Funkyowan	분향만	일본식표기
Koka-wan	강화만	일본식표기
Nanyo-wan	남양만	일본식표기
Shoal Gulf	천수만	영문지명
Shurenzan	주림산	일본식표기
Soho-nai	가로림만	일본식표기

위도	경도	총명
37.13556	126.7572	Namyang-man
37.13556	126.7572	Nanyō
37.13556	126.7572	Prince Jéō
37.57944	126.3775	Imperatrice Gulf
37.57944	126.3775	Kanghwa-man
37.57944	126.3775	Kō
37.57944	126.3775	Kokwa Bay
37.57944	126.3775	Kokwa Wan

FULL_NAME_ND	수정일
Namyang-man	2000-03-14
Nanyo-wan	2000-03-14
Prince Jerome Gulf	2000-03-14
Imperatrice Gulf	1997-11-04
Kanghwa-man	1997-11-04
Koka-wan	1997-11-04
Kokwa Bay	1997-11-04
Kokwa Wan	1997-11-04

## 2. 대만사례의 비교 연구

대만은 1895년 중일전쟁에 패한 청나라 조정에 일본에 대만을 양도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해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지명에도 일본의 영향이 크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앞서 나온 유형대로 몇 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만의 경우 총 1,280개의 산악명과 산맥명이 등재되어 있으니 일본어 표기는 하나도 없으며, 영어로 Central Mountains와 Seaboard Mountains 두개만 영문표기 지명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가운데 12개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국내의 지명이 모두 영문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과는 달리 대만의 경우 한자지명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하천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1485개의 지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4개는 한자지명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표기법의 차이에 따라 같은 사물에 대해 중복되어 등재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국측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박경, 2006).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일본식 발음법이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의 경우에도 식민지시대부터 영국식으로 불려온 지명을 고유한 이름으로 환원하고 있다(중앙일보, 2006).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봄베이의 경우 뭍바이(1995), 캘커타가 콜카타(2001)로 이름을 바꾸었다.

## 요약 및 결론

우리는 동해와 독도표기에 관한 국제적인 수정노력을 진행시켜왔고, 국민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에도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일례로 구글어스(Google earth)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대로 동해(East Sea)와 Sea of Japan은 병기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산의 이름이 Tenno-san으로 표기된 곳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 많은 경우에 산 이름이나 육상의 새로운 시설물들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해안의 지명은 대부분 일제 시대의 지명을 유지하고 있음은 어떤 이유인가. 해양지명위원회가 설립되고 국제적으로 우리의 지명을 등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미국의 공간정보국(NGA)의 지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 45474개의 지명이 수록되어 있는 미국의 지명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분석한 결과는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 文獻

- 건설부국토지리정보원, 2006, 강원권 일본 식 지명의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 133p.
- 배미애, 2004, "영문판 '세계지역지리학' 교과서에 표현된 '한국' (1931~2002년)," 대한지리학회지, 39(3), 409-424.
- 심보경, 2003,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지명 어휘 데이터베이스의 한모색, 한국언어문학 51집, 141-161.
- 심혜숙, 2005, "중국동북지구의 이식지명 유형과 그 분포특점", 북한학보, 30, 167-187.
- 유경숙, KDC 4판(1996) 상의 외국인명, 지명 및 외래어의 한글표기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4), 27-57.
- 이경한, 2004, 미국 세계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의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2(3), 375-394.
- 최병두, 2002,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세계화시대 지역발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31-149.
- Azaryahu, M., and Golan A., 2001, "(Re) naming the landscape: The formation of the Hebrew map of Israel 1949-1960",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27(2), 178-195.
- Burgmann, I., and Kitchen P.J., 2006, "Does culture matter on the web?", *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 24(1), 62-76.
- Little, J. and Brown A., 2006, Someone to watch over you, *Computer Law & Security Report*, 22, 169-171.
- MacWilliams, M. W., 2002, Virtual Pilgrimages on the Internet, *Religion*, 32, 315-335.
- Pickering, J., 1997, The Internet in universities: liberation or desensitization?, *Computers & Geosciences*, 23(5), 513-519.
- Schroeder, R., Huxor, A., and Smith, A., 2001, Activeworlds: Geography and Social Interaction in Virtual Reality, *Futures*, 33, 569-587.
- <http://www.hendrick-hamel.henny-saveni.ie.pe.kr/holland17.htm>
- 데일리포커스, 2006, 11. 2, "구글어스 백두산은 아직도 중국땅". 기사
- 중앙일보, 2006, 11. 3, 인도 "우리 이름"